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8호 [루게 제24641호] 주제 103(2014)년 8월 16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 진정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되어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감탄을 드리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1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공장에서 생산정황의 불길을 세계가 지켜볼까 말까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더 높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히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한국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었다.

## 조국해방 위업을 성취하신 김일성주석

로므니아정당과 뻘루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정당과 뻘루단체가 8일과 11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은 인터넷홈페이지 《주제사상》에 《조선해방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마침내 내일을 개척하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었다.

#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자

##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

###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간백산밀영을 계속 참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총대우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20성상에 걸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조령도하시으로써 망국의 력사를 끝장내고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신 력사적인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항일의 전진기 간백산밀영을 끊임없이 찾았었다.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한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혁명전통교양에서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과 업적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조국파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위인상을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진행해오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에서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여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도록 하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충정을 다 바쳐가도록 하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충정을 다 바쳐가도록 하고있다.

## 혁명전적지 참관사업 활발

자강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깊이 새기고 조국해방의 결의를 넘쳐있는 청년군인들 앞에서 항일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항일혁명사적관 참관을 의의있게 진행해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97(2008)년 7월 도안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을 비롯하여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과 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깊이 새기고 조국해방의 결의를 넘쳐있는 청년군인들 앞에서 항일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항일혁명사적관 참관을 의의있게 진행해오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깊이 새기고 조국해방의 결의를 넘쳐있는 청년군인들 앞에서 항일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항일혁명사적관 참관을 의의있게 진행해오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깊이 새기고 조국해방의 결의를 넘쳐있는 청년군인들 앞에서 항일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항일혁명사적관 참관을 의의있게 진행해오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깊이 새기고 조국해방의 결의를 넘쳐있는 청년군인들 앞에서 항일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항일혁명사적관 참관을 의의있게 진행해오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깊이 새기고 조국해방의 결의를 넘쳐있는 청년군인들 앞에서 항일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항일혁명사적관 참관을 의의있게 진행해오고있다.



정론

백두의 넋으로 심장을 불태우자

8월 15일, 또다시 맞은 조국해방의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평도핵심으로 하여 전개하신 건민항쟁에 의하여 주제 34(1945)년 8월 15일 우리 조국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해방을 이룩하였다.

반만년 이 나라의 력사에 민족의 위대한 운명전환으로 새겨진 이날을 69번째로 맞이한 우리의 마음속에 백두산이 우뚝이 솟아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여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찬란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이 나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찾고있다.

이해의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조선인민군 편향부대 지휘관들이 백두의 눈보라를 보며 백두의 칼날을 버리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움을 맞이한 6월에도 전군의 모범적인 군인들로 조직된 답사행군대가 백두의 항일전투를 편향하였다.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 직매과녀맹의 대표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지자들을 돌아보았고 얼마전에는 전국의 당책임일군들이 백두의 풀물오른 근복차림으로 답사행군을 진행하였다.

누구나 흥분하고 격정을 터친다. 백두산에 오르면 무한한 혁명열로 심장이 한껏 달아오른다. 백두의 칼바람은 계속혁명의를 배배, 천배배 준다. ...

그렇다. 오늘 우리 혁명대에는 백두의 넋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살아 높여주고있다.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눈보라를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와 살로 간직하는것이 이 나라 천만군민의 지향으로,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있다.

백두의 넋으로 심장을 불태우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머안아오라.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목소리로 터치는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며 이것이 오늘 조선의 시대정신이다.

백두의 공기

에라게 기다리면서도 압제자에게 억눌려 백두산에 마음대로 오를수도 없었던 조선민족이었다.

백두산이 민족의 기개와 넋을 펼치는 영웅의 산악으로, 혁명의 성산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신 그때부터였다.

《백두산에 축지법 쓰는 장수 내렸》, 《일군행사를 투항하라 일행처리 축지법 쓰는 장수 백두산에 출현》이라는 백두산민영의 구호문헌들이 흥분으로 말해주고있다.

그때로부터 이 나라 삼천리강토는 자기의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억압과 착취를 부시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자주의 정신이 암흑을 깨치는 등불로 누리에서 밝아 올랐고 정의와 함을 펼치는 총대의 기상이 강대한 민족의 보검으로 인민의 손에 쥐여졌다.

그 이롭고 빛나는 김일성장군, 백두산장수, 백두산호랑이로 불리우신 그이께서는 혁명의 기발을 높이 추켜드시어 온 겨레를 전민항쟁, 자력항일애로 불리우키시였다.

그이께서 새끼신 백두산 줄기줄기, 백두의 넋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살아 높여주고있다.

백두산이 민족의 기개와 넋을 펼치는 영웅의 산악으로, 혁명의 성산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신 그때부터였다.

《백두산에 축지법 쓰는 장수 내렸》, 《일군행사를 투항하라 일행처리 축지법 쓰는 장수 백두산에 출현》이라는 백두산민영의 구호문헌들이 흥분으로 말해주고있다.

그때로부터 이 나라 삼천리강토는 자기의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억압과 착취를 부시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자주의 정신이 암흑을 깨치는 등불로 누리에서 밝아 올랐고 정의와 함을 펼치는 총대의 기상이 강대한 민족의 보검으로 인민의 손에 쥐여졌다.

그 이롭고 빛나는 김일성장군, 백두산장수, 백두산호랑이로 불리우신 그이께서는 혁명의 기발을 높이 추켜드시어 온 겨레를 전민항쟁, 자력항일애로 불리우키시였다.

그이께서 새끼신 백두산 줄기줄기, 백두의 넋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살아 높여주고있다.

백두산이 민족의 기개와 넋을 펼치는 영웅의 산악으로, 혁명의 성산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신 그때부터였다.

《백두산에 축지법 쓰는 장수 내렸》, 《일군행사를 투항하라 일행처리 축지법 쓰는 장수 백두산에 출현》이라는 백두산민영의 구호문헌들이 흥분으로 말해주고있다.

그때로부터 이 나라 삼천리강토는 자기의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억압과 착취를 부시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자주의 정신이 암흑을 깨치는 등불로 누리에서 밝아 올랐고 정의와 함을 펼치는 총대의 기상이 강대한 민족의 보검으로 인민의 손에 쥐여졌다.

그 이롭고 빛나는 김일성장군, 백두산장수, 백두산호랑이로 불리우신 그이께서는 혁명의 기발을 높이 추켜드시어 온 겨레를 전민항쟁, 자력항일애로 불리우키시였다.

그이께서 새끼신 백두산 줄기줄기, 백두의 넋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살아 높여주고있다.

백두산이 민족의 기개와 넋을 펼치는 영웅의 산악으로, 혁명의 성산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신 그때부터였다.

《백두산에 축지법 쓰는 장수 내렸》, 《일군행사를 투항하라 일행처리 축지법 쓰는 장수 백두산에 출현》이라는 백두산민영의 구호문헌들이 흥분으로 말해주고있다.

그때로부터 이 나라 삼천리강토는 자기의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억압과 착취를 부시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자주의 정신이 암흑을 깨치는 등불로 누리에서 밝아 올랐고 정의와 함을 펼치는 총대의 기상이 강대한 민족의 보검으로 인민의 손에 쥐여졌다.

그 이롭고 빛나는 김일성장군, 백두산장수, 백두산호랑이로 불리우신 그이께서는 혁명의 기발을 높이 추켜드시어 온 겨레를 전민항쟁, 자력항일애로 불리우키시였다.

그이께서 새끼신 백두산 줄기줄기, 백두의 넋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살아 높여주고있다.

백두산이 민족의 기개와 넋을 펼치는 영웅의 산악으로, 혁명의 성산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신 그때부터였다.

《백두산에 축지법 쓰는 장수 내렸》, 《일군행사를 투항하라 일행처리 축지법 쓰는 장수 백두산에 출현》이라는 백두산민영의 구호문헌들이 흥분으로 말해주고있다.

그때로부터 이 나라 삼천리강토는 자기의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억압과 착취를 부시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자주의 정신이 암흑을 깨치는 등불로 누리에서 밝아 올랐고 정의와 함을 펼치는 총대의 기상이 강대한 민족의 보검으로 인민의 손에 쥐여졌다.

그 이롭고 빛나는 김일성장군, 백두산장수, 백두산호랑이로 불리우신 그이께서는 혁명의 기발을 높이 추켜드시어 온 겨레를 전민항쟁, 자력항일애로 불리우키시였다.

그이께서 새끼신 백두산 줄기줄기, 백두의 넋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살아 높여주고있다.

백두산이 민족의 기개와 넋을 펼치는 영웅의 산악으로, 혁명의 성산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신 그때부터였다.

《백두산에 축지법 쓰는 장수 내렸》, 《일군행사를 투항하라 일행처리 축지법 쓰는 장수 백두산에 출현》이라는 백두산민영의 구호문헌들이 흥분으로 말해주고있다.

압록강 굽이굽이의 피어린 자욱자욱은 조국해방의 환희로운 그날을 안아오고야말았다.

69년전, 온 나라에 메아리치던 《조국해방 만세!》의 우렁찬 함성을 귀에 쟁쟁히 들으며 우리 다시금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긴다.

백두산은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토록 빛을 뿌리는 조선혁명의 성산이라고.

그렇다. 우리가 말하는 백두의 공기는 단순히 배부르 들이키는 자연의 공기보다 더하다.

그것은 항일의 혈전 만리에서 김일성팔찌산이 부린 혁명의 기운이다.

그것은 반만년력사에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기상이며 그이께서 백두의 명봉에서 개척하신 이 나라 천만군민의 지향으로,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있다.

백두의 넋으로 심장을 불태우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머안아오라.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목소리로 터치는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며 이것이 오늘 조선의 시대정신이다.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은 그들이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조선로동당의 태이오고 새이었던 건설동지사의 첫 당원들—차광수, 김혁동지들이 물려준 붉은 넋이 짙차있었고 저 너머 청봉밀영에서 추상같이 울리던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선언이 울리고있었으며 오중총 7련대의 수령김사을위정신이 백배로 굳어져 있었다. 백두의 전구들을 편향하면서 삼지연군인들속에서 항일유격대식중중중치사업도 하였으며 시랑소모임과 혁명가요합창경연도 하고 모닥불을 피워 내기도 함께 나누고 천막을 치고 빨래산들처럼 숙영도 해본 그들이었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그들은 백두의 공기를 온 나라에 짙 채우는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고 백두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며 김일성팔찌산식으로 혁명적의 법을 다시, 더 잘 배운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 《전적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섰다.

북이다. ... 백두산의 눈보라를 오래간만에 맞으니 정신이 번쩍 들린다. ...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며 백두산에 올라가보아야 백두산의 진미를 알수 있습니다. ...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 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 길에 칠의 불바다라면 이 길은 뜻밖의 길입니다. ...

주제 61(1972)년 5월 31일 눈보라를 헤치고 백두산에 오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

백두의 눈보라,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이 그대로 안겨오는 백두의 눈보라이다. ...

눈보라세한 2월의 백두산민영에서 탄생하시어 푸른물결의 12월 그 마지막길도 눈보라속에 가신 어,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한평생을 사시였다. 자신께서는 눈보라강행군으로 불굴의 로고를 바치시면서도 조국앞에는 강성번영의 만리를 펼쳐놓으시고 인민에게는 천만가지 행복의 띠전을 안겨주시였다.

어머님의 따뜻한 품속에 계시던 어린시절에도 눈에 익도록 보시었고 백두산으로의 첫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던 주제 45(1956)년 6월에도 마음속에 안고가신 눈보라,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속완성할 숭고한 사명의 자각이었다. 총대로 시작되고 총대로 백승을 펼치던 위대한 선군길의 만단사연이 그 눈보라에 어러웠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른들의 군사여행지에서도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는 총중시를 읊으시었고 21세기 강성국가건설의 전격로를 열어나가시던 때에도 2월의 눈보라길을 헤쳐가시였다.

회양안고 이 길을 가고자리라 마음속으로 외우고 또 외우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눈보라의 길, 헌신의 길우에서 일어나 가슴벅찬 강성번영이 우리를 찾아왔던가. 사회주의봉구의 어지러운 바람이 불어치던 1990년대대항도봉마루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라는 불멸의 글방이 빛나왔고 1998년 8월말 내 나라를 총격하게 받드는 성스러운 진군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길을 닦아주신 장군봉에 당도한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답사행군대오에 백두산은 역시 호락호락 문을 열어주지 않는듯 하였다. 길은 운무, 보슬비와도 같이 뽀얗게 적시는 물방울들... 일순간 맑아지다가는 세기에도 천만가지 품에 안아 로동당의 붉은기일에 땀땀이 새워주는 무한한 인덕도 있으며 원자탄으로도 갸우 없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로,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활화산으로 분출시키는 사상전의 드레한 포화도,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혁명군가의 위력도 있다.

이 모든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

백두의 눈보라를 실감한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위업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결실이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안다는것이며 위대한 올라가보아야 백두산의 진미를 알수 있습니다. ...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 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 길에 칠의 불바다라면 이 길은 뜻밖의 길입니다. ...

주제 61(1972)년 5월 31일 눈보라를 헤치고 백두산에 오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

백두의 눈보라,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이 그대로 안겨오는 백두의 눈보라이다. ...

눈보라세한 2월의 백두산민영에서 탄생하시어 푸른물결의 12월 그 마지막길도 눈보라속에 가신 어,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한평생을 사시였다. 자신께서는 눈보라강행군으로 불굴의 로고를 바치시면서도 조국앞에는 강성번영의 만리를 펼쳐놓으시고 인민에게는 천만가지 행복의 띠전을 안겨주시였다.

어머님의 따뜻한 품속에 계시던 어린시절에도 눈에 익도록 보시었고 백두산으로의 첫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던 주제 45(1956)년 6월에도 마음속에 안고가신 눈보라,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속완성할 숭고한 사명의 자각이었다. 총대로 시작되고 총대로 백승을 펼치던 위대한 선군길의 만단사연이 그 눈보라에 어러웠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른들의 군사여행지에서도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는 총중시를 읊으시었고 21세기 강성국가건설의 전격로를 열어나가시던 때에도 2월의 눈보라길을 헤쳐가시였다.

회양안고 이 길을 가고자리라 마음속으로 외우고 또 외우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눈보라의 길, 헌신의 길우에서 일어나 가슴벅찬 강성번영이 우리를 찾아왔던가. 사회주의봉구의 어지러운 바람이 불어치던 1990년대대항도봉마루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라는 불멸의 글방이 빛나왔고 1998년 8월말 내 나라를 총격하게 받드는 성스러운 진군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길을 닦아주신 장군봉에 당도한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답사행군대오에 백두산은 역시 호락호락 문을 열어주지 않는듯 하였다. 길은 운무, 보슬비와도 같이 뽀얗게 적시는 물방울들... 일순간 맑아지다가는 세기에도 천만가지 품에 안아 로동당의 붉은기일에 땀땀이 새워주는 무한한 인덕도 있으며 원자탄으로도 갸우 없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로,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활화산으로 분출시키는 사상전의 드레한 포화도,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혁명군가의 위력도 있다.

이 모든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

백두의 눈보라를 실감한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위업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결실이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안다는것이며 위대한 올라가보아야 백두산의 진미를 알수 있습니다. ...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 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 길에 칠의 불바다라면 이 길은 뜻밖의 길입니다. ...

주제 61(1972)년 5월 31일 눈보라를 헤치고 백두산에 오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

백두의 눈보라,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이 그대로 안겨오는 백두의 눈보라이다. ...

눈보라세한 2월의 백두산민영에서 탄생하시어 푸른물결의 12월 그 마지막길도 눈보라속에 가신 어,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한평생을 사시였다. 자신께서는 눈보라강행군으로 불굴의 로고를 바치시면서도 조국앞에는 강성번영의 만리를 펼쳐놓으시고 인민에게는 천만가지 행복의 띠전을 안겨주시였다.

어머님의 따뜻한 품속에 계시던 어린시절에도 눈에 익도록 보시었고 백두산으로의 첫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던 주제 45(1956)년 6월에도 마음속에 안고가신 눈보라,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속완성할 숭고한 사명의 자각이었다. 총대로 시작되고 총대로 백승을 펼치던 위대한 선군길의 만단사연이 그 눈보라에 어러웠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른들의 군사여행지에서도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는 총중시를 읊으시었고 21세기 강성국가건설의 전격로를 열어나가시던 때에도 2월의 눈보라길을 헤쳐가시였다.

회양안고 이 길을 가고자리라 마음속으로 외우고 또 외우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눈보라의 길, 헌신의 길우에서 일어나 가슴벅찬 강성번영이 우리를 찾아왔던가. 사회주의봉구의 어지러운 바람이 불어치던 1990년대대항도봉마루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라는 불멸의 글방이 빛나왔고 1998년 8월말 내 나라를 총격하게 받드는 성스러운 진군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길을 닦아주신 장군봉에 당도한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답사행군대오에 백두산은 역시 호락호락 문을 열어주지 않는듯 하였다. 길은 운무, 보슬비와도 같이 뽀얗게 적시는 물방울들... 일순간 맑아지다가는 세기에도 천만가지 품에 안아 로동당의 붉은기일에 땀땀이 새워주는 무한한 인덕도 있으며 원자탄으로도 갸우 없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로,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활화산으로 분출시키는 사상전의 드레한 포화도,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혁명군가의 위력도 있다.

이 모든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

백두의 눈보라를 실감한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위업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결실이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안다는것이며 위대한 올라가보아야 백두산의 진미를 알수 있습니다. ...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 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 길에 칠의 불바다라면 이 길은 뜻밖의 길입니다. ...

주제 61(1972)년 5월 31일 눈보라를 헤치고 백두산에 오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

백두의 눈보라,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이 그대로 안겨오는 백두의 눈보라이다. ...

눈보라세한 2월의 백두산민영에서 탄생하시어 푸른물결의 12월 그 마지막길도 눈보라속에 가신 어,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한평생을 사시였다. 자신께서는 눈보라강행군으로 불굴의 로고를 바치시면서도 조국앞에는 강성번영의 만리를 펼쳐놓으시고 인민에게는 천만가지 행복의 띠전을 안겨주시였다.

어머님의 따뜻한 품속에 계시던 어린시절에도 눈에 익도록 보시었고 백두산으로의 첫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던 주제 45(1956)년 6월에도 마음속에 안고가신 눈보라,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속완성할 숭고한 사명의 자각이었다. 총대로 시작되고 총대로 백승을 펼치던 위대한 선군길의 만단사연이 그 눈보라에 어러웠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른들의 군사여행지에서도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는 총중시를 읊으시었고 21세기 강성국가건설의 전격로를 열어나가시던 때에도 2월의 눈보라길을 헤쳐가시였다.

백두의 눈보라를 실감한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위업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결실이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안다는것이며 위대한 올라가보아야 백두산의 진미를 알수 있습니다. ...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 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 길에 칠의 불바다라면 이 길은 뜻





# 정책적오류는 파멸을 초래하기마련이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정계에서 주요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내선정책》이 주요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외안에서 《도대체 전략적내선정책의 기간은 얼마인가.》, 《수백년, 수천년동안 내내해야 하는가.》, 《평생 내내해야 하는가.》 등 대조선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내의 정책연구기관들에서도 미국의 정책에는 전략도 없고 뚜렷한 전술적 목표도 없다. 오바마의 대조선정책에 좌절감을 느끼고있다는 비평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행정부의 전략적내선이라는 데만 정책은 산산이 부서지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지금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조선을 비핵화시키지 못할것이다. 조국은 핵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증강시키고있다. 조선핵문제는 포도주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전략적내선정책》은 조선이 자국의 목적을 추구할수 있도록 시간만 벌어주고있다. ... 세계에서 정치는 저들만이 안다고 자처하면서 마치 국제재판관이 되는듯이 당당한 주권국가에 대고 끈질기게 호시탐탐 미국이 제 집안의 대외정책문제를 가지고 말갈발부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아닐수 없다.

지금껏 세계의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 하든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자부해오던 대외정책이 조선에 대해서만은 통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되었다. 조선은 핵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증강시키고있다. 미국의 반공외교고립압살정책의 도수는 1990년대부터 더욱 높아졌다.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게 되자 미국은 환성을 지르며 조선이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역대 집권자들의 변함없는 주요정책으로 되어왔다. 조선반도를 영원히 가로타고앉으려는 기도로부터 미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전쟁과 대화의 양면정책을 실시해왔다. 《전략적내선정책》은 오바마 자신이 고안한 찬란품으로서 일명 《기다리는 전략》으로 불리우고있다. 조미관계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풀지 않고 전쟁 위협과 압박,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이 봉쇄정책은 사실상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창피한것이다.

집권초기 정치가로서의 품격과 지성은 고상하고 정치의 초년성, 외교의 초화도 가 갖추어 있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것을 내놓고 오바마가 그것을 감히 우리 공화국에 시험해보려 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전략적내선정책》에 매달려왔으면 매달려보라. 기다려보았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실컷 기다려보라고 면박을 주었다.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가져다줄것이란 허언은 패배하여 자취 때문에 정책전환을 해야 하는 종교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군사적압박과 경제봉쇄정책에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려왔는가. 미국은 후종세력들까지 동원하여 우리에게 대한 경제와 봉쇄정책을 끊임없이 강행하였다. 강도높은 제재를 하고 봉쇄를 들이대면서 시간을 끌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건디 못하고 굴복하게 될것이라는것이 미국의 타산이었다. 미국의 반공외교고립압살정책의 도수는 1990년대부터 더욱 높아졌다.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게 되자 미국은 환성을 지르며 조선이

《2~3년내에 붕괴될것》이라는 여론까지 내몰며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와 전면적인 금융제재는 통할리 만무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이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한 여기는 사회주의 제도를 어쩔수 없었다. 우리 인민은 어떤 미국의 제재와 압박은 물론 정치, 군사적봉쇄도 다 이겨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든든한 기초를 닦아놓았다. 미국의 끊임없는 경제봉쇄와 고립, 정치군사적압박과 위협행동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담보할수 있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갖추어놓았다. 선군조선의 위력은 비할바 없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면파탄을 의미한다. 오바마는 여기에 외교교훈을 찾고 대조선정책전환을 해야 할것이었다.

하지만 오바마행정부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저들에게 유린당한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체제에 굴복하라고 외란해로부터 대화와 협상을 회피하는 길을 택하였다. 제재를 국제화하여 우리를 정치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것이 그들의 타산이었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나 열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직면한 현안으로 조선의 《위협》을 꼽으면서 《조선의 비핵화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고대하고 있는조지미국의 위대한 《통과》까지 내몰며 《급변사태》대비책강구에 대해 떠드는것이 오바마의 《전략적내선정책》이었다. 그러나 나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는 제가 먼저 빠지는 격으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말살해보려고 날뛰다가 모미대결에서 우리에게 계속 참예만 기록하고 국제무대에서 개개 망신당 당하고있다. 미국의 지배전략은 전세계적범위에서 밀부리쳐 뒤흔들고 동북아시아에서도 미국의 위력은 크게 약화되고있다. 미국의 위력은 땅바닥이 떨어졌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시대착오적인것으로서, 현실적각각이 무더고 무지로부터 산성된것으로서 파멸을 면치 못한다.

미국의 정책들이 우리에게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책적오류를 범하기마련이다.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미국이 아직도 제 할바를 찾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몰두하고있다는것은 비극이다. 실책을 범하지 않으려면 상태를 바로 보고 대해야 한다. 상대를 모르면 정책작성에서도 오류를 범하기마련이다. 정치가라면 군사안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며 멀리 앞을 내다볼줄 알아야 한다. 오바마의 집권기간은 2017년초까지이다. 《전략적내선정책》에 허황한 기대를 걸고있는 정책들이여! 해도 그동안 일어난 우리의 진정여력이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상상해볼수 있을것이다. 왕당파가 짝이 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미국정책들이 말뚝을 허물어줄수 있도록 해줄수 있도록 하자. 미국이 명칭의 시간만 보낼수록 우리의 강력한 핵억제력은 더욱 정예화되어갈뿐이다. 모든것은 시간이 마해줄것이다. 미국은 수지와 파멸을 촉진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이제라도 깨어나 정책전환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 국제사회계가 강력히 규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정책 등에 미쳐달면 조선을 조인반도정세를 파괴하여 계속 매어달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남조선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공화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로케트발사를 《도발》이라고 우겨대며 조선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이 미국이며 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것을 보여주어주고있다.

영국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영국의 진보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제와 남조선피괴의 《을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준비이다. 미국과 남조선정부는 이번 연습에서 《맞춤형제정력》이 이뤄지도록 실현에 공적응용한다는것을 내놓고 선포하고있다. 조선이 북반관계개선을 위한 중대한 평화제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으나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을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조선에 대한 악랄한 모독이며 세계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행위이다. 【조선중앙통신】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국제사건연구소장은 《을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북반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략인다고 옳과 같이 경고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제와 남조선피괴조력자들의 침략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백악관과 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대지들이 조선인민들의 진격 및 전술로케트를 비롯한 강위력한 최첨단조성밀회력타격수단들의 목표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취에 언제나 준비되어있다. 조선인민 《달사우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거어인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조선의 근대와 인민은 미제가 팔팔대 불질한다면 그 기회에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전쟁의 원흉, 악의 소굴을 송두리채 없애버릴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면 새 조선전쟁은 미국의 완전종말을 가져올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스웨리에신문 《다겐스 니헤페르》 4일 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내는게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북부의 나라, 신문사의 기자 높은 생활수준에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말 우리 나라를 찾았던 본사기자의 당시 방문인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